100만평 규모 야생화 공원 만든다

구례군, 산동면 일대… 300억원 투입

지리산 온천·펜션 단지 연계 관광지로

구례군에 100만평(330ha) 규모의 야생화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구례군은 전남도와 공동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국·도비와 군비, 민자 등 300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덕골 일원에 대규모 야생화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구례 지역은 1천500여종의 야생화 자생지인 지리산이 있고 연간 6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어 야생화 생태공원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공원이 조성될 산동면 이평리 일대는 지리산 자락으로 주변에 온천과 구만 저수지, 철쭉단지, 사찰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군은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산촌 고급휴양 펜션 단지와 수목원 등도 만들어 광의면 온당리 철쭉단지와 함께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군은 또 야생화 생태공원를 오는 8월 오픈하는 야생화연구소와 함께 생물산업 허브로 정착시켜 야생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야생화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연간 5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해 100억여원의 농가소득과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례군은 최근 고근석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전남도와 구례군 의원, 관련분야 교수·전문가 등 15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방향과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 하는 첫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말까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땅끝 모노레일 카' 인기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과 사자봉 전망대 사이를 오가는 '땅끝 모노레일 카'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노레일 카는 해남군과 (주)한국모노레일이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31억4천만원을 들여 2005년 12월 개통해 현재까지 19만여 명이 이용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투자유치 민간인도 포상

담양군 투자자 발굴 등 성과땐 최고 1천만원

담양군이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투자유치 포상금을 민간인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발굴을 비롯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를 주도적으로 추진, 성과가 인정되는 민간인에게는 군 자체 포상금 지급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또 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투자유치에 공헌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이 제도 시행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담양댐 성묘객 보트수송

담양소방서가 올 설에도 담양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성묘객을 위해 뱃길을 지원했다. 담양소방서는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추월산 선착장에서 10인승 수난구조정과 고무 보트 등을 이용해 31명의 성묘객을 이송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함평천지 '난 향기' 솔솔

내달 3일 전국 난 전시회… 춘란 등 500여점 출품

한국 춘란의 보고인 함평군에서 전국 최대규모의 난 전시회가 열린다.

함평군과 함평난연합회는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음 달 3일 자연생태공원 전시관에서 '난의 향기 가득한 작은 세계로'라는 주제로 '2007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한국 춘란 500여점이 선보인다.

함평군은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대상에 농림부장관상과 1천만원 상당의 황금을 부상으로 수여하는 등 모두 120여점을 선정, 3일 밤 열리는 '애란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또 초보자를 위한 난 관리기술 상담코너 및 난 배양 기자재 전시, 난 관련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이 운영된다.

출품작은 다음달 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난 전시실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사업소와 함평난연합회(061-320-3529)로 문의하면 된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지난해에는 6만여명이 찾는 등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잠재적 수요가 큰 난을 육성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제암산 휴양림 편의시설 늘린다

5억 투입 야영장·물탱크 등 설치

제암산 자연휴양림에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보성군은 5억원을 들여 웅치면 대산리 제암산 자연휴양림에 야영장을 대폭 확충하고 화장실을 신축할 방침이다. 또 관정개발과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올 여름 휴가철 전에 편익시설 확충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996년 개장한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대형 세미나실을 갖춘 제암관〈사진〉을 비롯해 통나무집과 야영단지,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인근 일림산(해발 667.5m)일대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군락지와 보성다원, 녹차해수탕 등과 연계한 휴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성군은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남해안 최고의 산림휴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광산 주요문화재 등 소개

'문화유적을 찾아서' 제작

광산구가 관내 주요 문화재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문화관광해설자료집 '광산문화유적을 찾아서'를 제작한다.

다음달 중에 선보일 예정인 A4용지 160쪽 분량의 이 책자에는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 신룡동 5층석탑 등 시지정문화재 24건이 실리게 된다. 또 광산동 칠송정, 두정동 백룡사지 부도 등 비지정문화재 30건과 용진산, 어등산, 송정 떡갈비 등 광산구 자랑거리 39건도 소개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밖에 관내 주요 문화재와 위치 등을 설명하는 소형 지도책자를 함께 만들기로 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순창군 적극 나서

순창군이 분당서울대 병원 분원 유치에 나선다. 군은 이를위해 오는 27일 강인형 군수가 분당 서울대병원장을 만나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서울대 병원측에서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피력해옴에 따라 3~4월께 양 기관 실무진의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안에 유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안과와 비뇨기과, 소화기과 등 노인성 질환관련 분원을 유치하면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

농협화순군지부 '신토불이 매장' 새 단장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가 기존의 신토불이 매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새로 문을 연 신토불이 매장에는 쌀과 인삼제품 등 지역 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사진〉

정종순 지부장은 "최근에 도정된 쌀만을 전시·판매하고, 음료 등을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색있는 신토불이 매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해남농협 조합장

이정묵씨 당선

이정묵(65·사진) 현 해남군번영회장이 신임 해남농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지난 14일 실시된 해남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이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 1천775명 중 938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해남농협을 투명하고 내실있고 믿음직한 조합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